

석사학위청구전

사랑 산책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임 수 영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사랑 산책

Love Walk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임 수 영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사랑 산책

Love Walk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임 수 영

임수영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한종호 (인)

심사위원 김정현 (인)

심사위원 김신재 (인)

사랑 산책

Love Walk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멕시코 애니메이션 “코코(Coco)”¹⁾를 좋아한다. 화려한 영상의 색감들이 감동적이다. 멕시코의 유명 축제인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12살 소년 미겔이 고대의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마치 장 그르니에(Jean Grenier)의 『어느 개의 죽음』²⁾처럼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꿈과 가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자 했던 영화다. 사후 세계는 표면적인 것일 뿐 이승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꿈 이면의 이야기들이다. 아마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매일 생각했다. 가족이었다가 세상을 떠난 네 마리 강아지, 복남, 순돌1, 아리1, 아리2를 그려내는 일 말이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으나 보내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한동안 마음 앓이를 많이 했다. 3년 전 지금의 강아지 순돌2를 입양했다. 정성을 다하다보니 내 그림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오래된 가족의 추억들을 동반하니 시간과 공간 너머 신비로운 세상이 열렸다. 산 자와 죽은 자, 강아지와 사람이 종이 위에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필자의 작업은 그들을 그리는 것이 라기보다 장 그르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속성들을 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개의 죽음』에는 이런 말이 있다.

“고대 이집트의 지하 묘지에서도 인간과 동물은 격리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물들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미하기 위해서였다. 파오기, 황소, 고양이, 개, 각각의 동물들은 종류에 따라 그들만의 구역을 지니고 있었다. 그곳의 동물들은 미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인간에게 양립 불가능하지만 동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의 속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우주에 활기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단속적인 말로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속성들 말이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목처럼 어느 개의 죽음이었을까? 문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어쩌면 개의 재생, 개의 부활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지극한 언설의 행간을 보면 그런 힘들이 느껴진다. 이집트의 묘지, 박제된 동물들을 보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속성이라 해석하는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그의 독백은 한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회한과 뉘우침 혹은 의무에서 벗어난 위선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에 투사된 사람의 존재 아니 천지에 가득한 생명들의 존재를 빼놓지 않는다. 삶과 죽음과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이별에 대한 기록들이 주는 영감이 크다. 사실 그르니에는 『어느 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개의 재생을, 그의 건조한 문장 속에서 되살려냈던 것이다. 인간에 비하면 만남에서 이별까지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생·로·병·사·희·로·애·락이 있다. 필자는 그 숨결 마디마디를 포착해내고 싶었다. 필자의 그림 작업은 그렇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2. 개 그림의 역사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동물을 그렸다. 그래서 태고 이래 가장 빠른 그림의 소재가 동물화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 회화인 스페인의 알타미라 벽화나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 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거론한다. 고래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다. 여기에는 거북이, 귀신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범고래, 호랑이 등 육지동물 97점, 해양동물 92점, 사람 17점, 그물, 작살 등 연장류 6점이 그려져 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을 압도적으로 많이 그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중 고래가 가장 많고 사슴, 호랑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주목할 것은 단단한 석기로 새긴 면새김과 선새김 방법이다. 그림의 윤곽을 새긴 후 내부를 고르게 쪼아 내거나 긁어내는 신석기 시대의 방법을 면새김이라 한다. 윤곽이나 특징적 요소를 선이나 점으로 새기는 청동기 시대의 방법을 선새김이라 한다. 이 그림 방법이 신기술을 더하며 발전하여 오늘날 그림의 방법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을 것이다.

1) 2017년 제작된 미국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뮤지컬 판타지 영화이다. 리 언크리치가 감독하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하였으며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배급하였다.

2) 장 그르니에 지음, 윤진 옮김, 『어느 개의 죽음』, 민음사, 1997

인류 문화사적 맥락에서도 개는 귀족 남성의 자부심인 사냥개, 우아한 여성의 무릎을 차지한 앙증맞은 애완견, 아이들의 다시없는 친구이자 외로운 자들의 따뜻한 벗이었다. 조형미술로만 보더라도 1만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한 동물이다.³⁾ 개는 열두 띠에 속해있으므로 그림 뿐 아니라 석물조각, 토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기원전 8,000년에서 1,000년 전 신석기시대 토기 ‘채도호회투견문(彩陶壺繪犬紋)’이라는 개 그림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 장천1호분과 송죽리 고분벽화 등에 다른 풍경들과 함께 그려진 개가 나타난다. 장천1호분에는 벽면과 천장 등에 사냥장면과 전투장면, 여래좌상과 예불공양자, 연꽃과 연꽃화생, 해와 달, 복두칠성, 백희기악 등이 그려져 있는데, 사냥하는 장면에 개가 있다. 여기서의 흰말과 흰개는 저승에서 무덤 주인을 지켜주기 위한 신앙적 의미로 해석한다.⁴⁾ 개그림이 주로 고분이나 무덤 등 상장(喪葬)과 관련된 예술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다. 안악3호분(357년) 내에 꿩과 사슴 등 여러 동물이 매달린 (肉庫(육고))⁵⁾를 지키는 두 마리 개, 각저총(5세기) 내 연도 입구에 위치해 무덤을 수호하는 <守墓犬(수묘견)>,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 고분(5세기) 전실 우측 벽화 내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흰둥이>, 무용총(5세기)의 <수렵도> 내 호랑이를 쫓는 사냥개 등이 거론된다.⁶⁾ 이원복은 이것을 조선말 민화에 이르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붉은 색 목걸이나 붉은 목걸이를 걸고 있다는 점을 그렇게 본 것이다. 또한 개 그림이 자애로운 모성애의 표현이라든가 익살 및 당당한 면을 잘 부각시킨 완성도 높은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상화나 진경산수화, 풍속화에 뒤지지 않는 격조와 기량을 가진 위상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적극 찬성하며 개 그림의 역사에 건주어 필자의 그림을 연계해보고자 한다.

3. 조선시대의 개 그림

조선시대에도 개를 많이 그렸던 것 같다. 그 중 몇 사례를 인용해본다. 조선 전기 이암의 개 그림이 가장 오래된 견도이다. 김송이의 『조선시대 犬圖 연구』에 의하면, 당시대의 화조영모화풍(花鳥 영모 화풍)을 토대로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발생한 그림으로 해석된다. 조선초기 영모화조화풍은 원대의 원체화풍과 밀접했다는 것이다. 이암의 그림이 대부분 일본에 있거나 일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삼성리움미술관 소장의 <花鳥狗子圖>도 일본에서 건너온 작품이고, 일본 소재 개인소장 <狗子圖>도 그렇다.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花鳥貓狗圖>도 일본에서 건너간 것으로, 조선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⁸⁾ 김송이는 이암의 견도가 원대 견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하면서, 이암의 <모견도>와 원대 <화음와견도>의 도상과 화면 구성, 화명의 크기 및 그려진 개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암의 견도는 개의 외형보다 행동 표현에 중점을 두어 등장동물들이 만드는 내러티브를 통해 화면에 기운생동함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

김두량(1696~1763)과 그 아들에 의해 그려진 개 그림 중 영조(1694~1776)의 어제(御題)가 있는 <삼살개(狗圖)>, <굼적이는 검은둥이(黑狗圖)>, <울타리 아래 삼살개>등도 대표적이다. 김두량의 개 그림은 몸을 굽거나 짙는 습성을 생동감 있게 그려 자세와 동세의 활동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김혜민에 의하면, 이암의 출현으로 견도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한국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한국 견화의 시대별 양식적 특징은 조선 초(16~17세기) 이암이 원체화풍을 새로운 양식으로 소화해 세전묘법이 아닌 몰골화법으로 화면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운영하였다. 18세기에는 김두량이 개의 터럭을 치밀하고 생동하게 그리는 사실 정신을 보였고 김홍도와 신윤복은 개를 풍속화 내에 소략한 필치로 그려 국풍적 미감을 자아냈다. 19세기는 18세기부터 대두된 서양화법 표현이 두각을 보인다. 중국화법을 내면화하여 해학적인 견화를 표현한 장승업의 작품 등이 돋보인다. 조선의 견화에서 표출되는 미의 특징은 해학미와 소박미, 개성 있는 사실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 미상의 <맹견도>, <방구도>는 전면 구도와 굵은 쇠 목걸이, 매서운 눈매 등의 요소를 통해 긴장감이 도는 정적 풍경을 표현하였다.⁹⁾

조선후기에는 사실적인 견도를 그린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개를 실증적으로 바라보며 개의 천성을 파악하고, 개를 분류하여 이름을 붙이며, 개 질병 치료법 등을 기술했다. 실학의 실증적인 성향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계하는 개, 몸을 굽는 개 등의 화법은 개가 취하는 행동을 약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사실적인 화법을 관찰하고자 했다. 조선후기에는 오동폐월도를 주목한다. 집을 지키는 개의 행동에 오동나무를 연결시켜 그림 속에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3) 스테파노 추피, 김희정 옮김, 『그림 속의 강아지』(예경, 2013, 8~20쪽), 이원복, 『金斗樑 金德夏 父子의 犬圖』에서 재인용

4)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우리의 오랜 친구 개』, 2006. 전시를 참고.

5) 각 관아에 딸렸던 푸줏간

6) 이원복, 『金斗樑 金德夏 父子의 犬圖-基準作과 推定作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2013, 272쪽.

7) 영모화조(翎毛花草)류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새매, 기러기, 오리, 수선, 매화, 죽, 난 송백, 구화, 국화 등은 충(忠)의 상징으로 시와 그림에서 사용되었다. 고연희, 『충을 상징한 영모화조-구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제 21집, 2014 참고.

8) 박은순, 『19세기 조선서화전을 통해 본 한일 회화교류』, 『미술사학연구』 제273호, 2012, 144쪽.

9) 김혜민, 『동양화의 견표현 연구-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2~83쪽.

이 또한 청나라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⁰⁾ 하지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한 조선의 전화는 예컨대 김득신의 <오동폐월도>처럼 한국만이 지니는 독특한 정적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나가는 말 - 필자 그림의 계보를 생각하며

김혜민은 개 그림 표현 기법을 털의 길이에 따라 극단모, 단모, 장모로 구분하여 몰골화법, 구름설색, 명암법, 공필화법 등으로 나눈다. 이암의 <모견도>는 평면적인 농묵으로 몰골처리를 하고, 명선종의 <견도>는 견의 중앙을 농묵, 외곽으로 갈수록 담하게 처리하여 터럭의 부드러운 표현에 귀감을 준다. 서양화법의 경우도 낭세녕(郎世寧)의 <죽음서령도>는 극사실적인 채색법으로, 작자미상의 <맹견도>는 세선의 굵기와 농담의 변화를 통해 명암을 사용했다. 장모 견화의 경우, 다양한 공필화법으로 공세함을 구한다. 작자 미상의 <방구도>는 필선과 선염을 중첩시킨 적묵의 효과로 털에 무게감을 주었으며 모익(毛益) 외 작자 미상의 원체화기들은 색선을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화사하게 표현했다.¹¹⁾ 이 중 어느 한 계보를 추적해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도세자가 그린 개가 있다. 작은 개 두 마리가 큰 개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풍경이다. 정병설 교수는 큰 개를 향해 반갑게 달려가는 개를 사도세자로, 무덤덤한 큰 개를 영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개를 외국품종 즉 청나라의 개로 추정하고 있다. 사도세자 주변의 궁중 화원이었던 김두량, 변상벽 등에 의해 그려진 개 그림 등을 통해 이를 논거하고 있다.¹²⁾ 사도세자는 왜 이런 개를 그렸던 것일까? 사도세자의 평생을 애육과 사디즘, 일부다치제의 남성 권력 사회가 낳은 병적인 증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윤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모성에 결핍에 의한 끊임없는 불안의 표현이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는 어긋남이 어딘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네이에는 바느질감을 끊임없이 보냈고 사도세자는 수십 벌의 옷을 태우며 혜경궁의 파스한 손길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혜경궁이 사도세자의 의대 시중을 들며 치유하려 노력했다면 아마도 사도세자의 병이 치유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도세자가 그린 개를 이런 심리적 배경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부자 갈등의 안식처로 개를 상정해두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박윤호의 말처럼 성애의 진리에 대한 문화적 방법을 제시해주는 담론이 혜경궁의 『한중록』이라면 사도세자의 개 그림은 그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겠기 때문이다.¹³⁾ 만약 사도세자가 김두량이나 변상벽처럼 개 그림에 몰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부자간의 갈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이 치유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암의 개 그림에서는 특히 김홍도의 母狗養子(어미개가 새끼를 기를)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모성과 가족의 개념을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배경에 밝은 화제를 배치하거나 하중심구도를 이용해 안정적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끌어낸다는가, 강아지들의 약동하는 모습과 이를 가만히 응시하는 인자로운 어미견의 노동자 묘사를 통해 평화로운 정적 기운을 표현했다는 해석에 동의하는 이유다.

반려자는 짝이 되는 사람, 짝이 되는 동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인간의 영육이 반쪽이기에 짝을 만나 완성을 이룬다는 동양적 사고가 숨어 있다. 반려자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부인이며 가족이고 동무다. 짝과 더불어 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들어 있다. 필자는 반려견을 그렸다.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선현들의 독창적인 화풍을 이어받고 그 표현정신을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리적 계보를 따지자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또 어디를 향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개 그림의 역사와 조선시대의 그림,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심리적 정체까지 광범위한 맥락들을 두루 포섭하며 필자 그림에 대해 상고해본다. 반려를 그렸으니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일까. 필자의 그림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다.

한 때 함께 지냈던 복남, 순돌1, 아리1, 아리2. 그리고 지금도 곁에 있는 순돌2는 필자의 화선지에서 이내 뛰어어나와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정원으로 그리고 산책하던 작은 숲길들을 돌아 나온다. 그리움을 필자에게 주고 간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그리는 털 한 가닥 한 가닥들이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듯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작업이기에 가족의 정과 공유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다. 필자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을 작품 속에 그려내고자 했다. 불현듯 그들은 필자의 거실로 돌아와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그들은 어떤 우연으로 필자에게 왔지만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랑이었을지 모른다. 필자의 작업은 속절없던 이별도, 안타깝던 시절도 가뿐히 뛰어넘어 또 다른 시작인 '사랑 산책'이라는 테마를 이루었다.

10) 김송이, 『조선시대 견도 연구』, 2017,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Abstract에서 발췌 인용하였음.

11) 김혜민, 『동양화의 건표현 연구-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3쪽.

12) 정병설, 『궁궐의 개, 사도세자의 개』, 계간 문헌과 해석, 2011. 12. 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인용

13) 박윤호, 『<가게로닛기(蜻蛉日記)>와 <한중록>의 횡단성-가네이에(兼家)와 사도세자의 성애(性愛)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제69호), 2013, 243쪽.

Love walk in New York

10—20 Apr 2022 at the Kate Oh Gallery in New York, United States

1 APRIL 2022, Wall Street International Magazine

Felines and canines occupy an interesting and historically robust relationship within the annals of art history. From Pierre-Auguste Renoir's *Child with Cat* (Julie Manet) (1887) to Andy Warhol's cat lithographs, i.e. *25 Cats Named Sam and One Blue Pussy* (1954), and Lavinia Fontana famous painting, *Portrait of a Noblewoman* (1580), cats and dogs have been a recurrent motif for many visual artists and painters. In some traditions, the use of the cat and the dog has served simply the whimsy of portraiture; other artists have used the cat or dog as a symbolic relic with which to embody theological themes. Notably, Young Kyoong Kim's terracotta sculptures and Su Young Lim's natural mineral pigments and dyed mud pigments on silk are in continuity with these traditions, as both artists have taken the figure of the dog as their muse. However, both Kim and Lim also advance the motif of the dog beyond the aforementioned artists.

Young Kyoong Kim's terracotta works feature a whimsical, recurrent dog. The dog has orange-auburn fur, a brownish nose, and an ashen-white underbelly. Often, this dog is poised in regal stature, eyes closed, and an almost-anthropomorphic smile cast across its cheeks. The work is an example of an artwork effectively evoking a veridical emotional response over drawing simple likeness; due to the medium and the style of sculpture that Kim pursues, the dogs are often caught into animated poses—one might even deem them “cinematic” at points, like isolated frames from a film. Balled up and hunched, the dogs sometime seem ready to pounce or brush their head against the viewer. One of the most impressive works features the dog splayed across its back, its doughy alabaster stomach revealed. These poses will be familiar to all who have owned or interacted with dogs. In turn, Kim does an admirable job of giving us familial snapshots and proffering the amusing, lively site of sculpture as a foundation for intimacy. Kim's paintings are not works that aim to philosophically challenge us but instead serve both decorative purposes and are restorative. That is, glancing at these ebullient dogs, one cannot help but smile to oneself and gleam some therapeutic vim.

Some of Kim's terracotta sculptures feature the dog paired with one or two more of its mates; in exaggerated poses with paws open and backs stretched, these dogs seem to be cast in eternal conversation. As I noted earlier, the theme of anthropomorphizing is lightly imbued in some of the faint details of these works, including the light smiles one might make out between the dog's lips. This theme is only affirmed (if not underscored) in certain works where Kim renders the dog half-cherub. In a most inventive work, we see how underneath the mask of the dog peers a cast child, raising his arms and chest

out of the dog-fur legs and pouncing through the torso of the dog-figure. Like a faun, minotaur, or some other mythological creature, this figure straddles the thin line between man and animal. This work in particular is quite curious, insofar as it both frames the technique of anthropomorphizing as it is subtly utilized in the other works and introduces questions related to the distinct cut-off between man and animal. Such questions include what, exactly, discerns one from the other: is it sapience, or perhaps being able to give and ask for reasons about what one believes/takes to be the case. Despite the innocence with which the dog sculptures are introduced, in their out-stretched charming mode, the works do also introduce such further questioning.

Young Lim's works often feature a very similar dog to Kim's: ash-brown and dark-flaxen fur is bifurcated by bright tufts of white hair. However, Lim, contra Kim, does not stick with one single dog, as an array of dogs is often featured, including an all-white, snowflake-like dog.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eatures of Lim's work is their inventive use of the background vis-à-vis handmade paper canvases. Throughout these works, Lim also incorporates a mud-amber background evocative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which adds to the possibility that the dogs play a symbolic role (as animals always do in *Minhwa* painting). Many of Lim's works also feature the figure of the human alongside the dog, including one of the aforementioned brown-white dog perched behind the torso of a human who hands down a feeding bowl. Sometimes scattered relics and signs of human activity abound, including single discarded shoes and disheveled blankets. The dogs are often also robed in brightly lit clothing, including one such image of two dogs donned in sweaters—one crimson-and-white, reminiscent of a shining candy-cane, and the other robed in bright blue-and-red; a carved heart is detailed on both dogs' sweaters and their tails are neatly arced, almost as if they are coordinated. On the one hand, the dog sweaters are rather commonplace and a cute embellishment; however, like Lim, Kim's work and its integration of the motif of the dog with that of the human also unspools a series of questions about the identity/relationship between dog and person.

Kim and Lim's work, first and foremost, reminds us that visual art can be genuinely fun. Indeed, both Kim and Lim's ever-whimsical scenes are highly inviting and most enjoyable to get lost in. However, it is also worth underscoring that while both contributions explore the boisterous and the convivial, they also subtly experiment with anthropomorphizing non-human figuration.



Kate Oh Gallery

The mission of the gallery is to advocate for the work of lesser known artists through exhibitions that introduce collec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work.

Review written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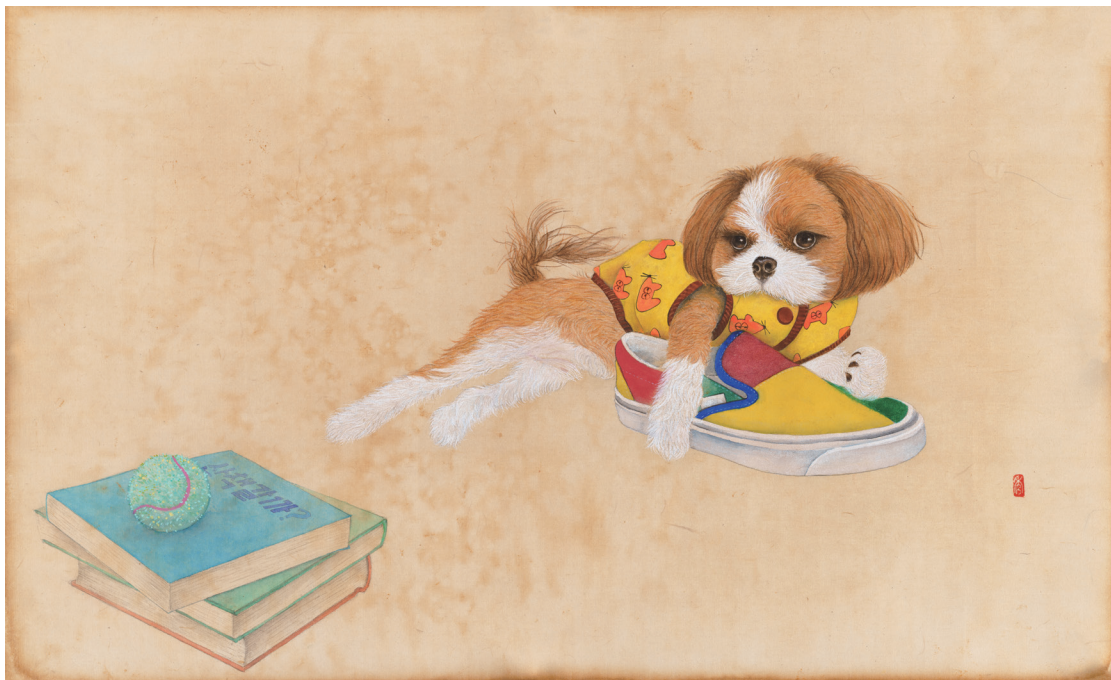
Art Critic Ekin Erkan, PhD in Philosophy

www.meer.com/en/69099-love-walk-in-new-york



SU YOUNG LIM

사랑 산책 31.5×24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한개도 부럽지 않아1 37×59.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사랑 산책 24×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사랑 산책 24×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한개도 부럽지 않아2 37×59.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사랑 산책 23×32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2



사랑 산책 36×48cm, 종이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paper, 2022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39×49cm, 비단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silk, 2021



사랑 산책 60×40cm, 종이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paper, 2021



사랑 산책 23×31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23×31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23×31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23×31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31×23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사랑 산책 32×23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SU YOUNG LIM



친구들1 99×80cm, 비단에 석채 dyed mud pigments on silk, 2020



친구들2 99×80cm, 비단에 석채 dyed mud pigments on silk,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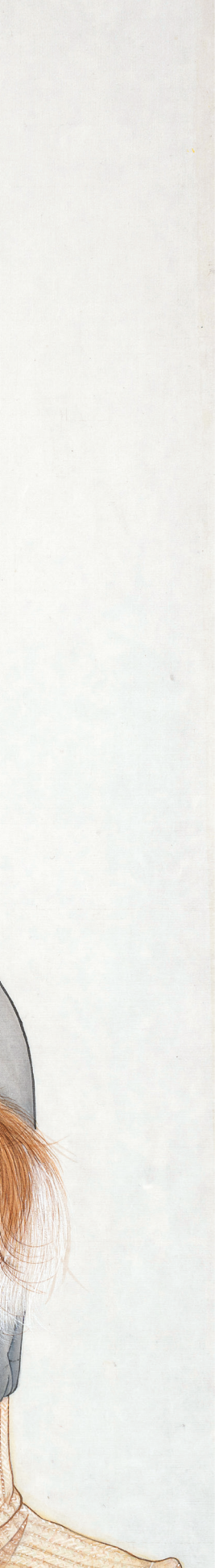
다음 생을 축복해 50×93cm, 모시에 석채 dyed mud pigments on ramie fabric, 2020





꿈을 꾸듯 50×93cm, 모시에 석채 dyed mud pigments on ramie fabric, 2020





초겨울 햇살 아래 72.5×62cm, 비단에 석채 dyed mud pigments on silk,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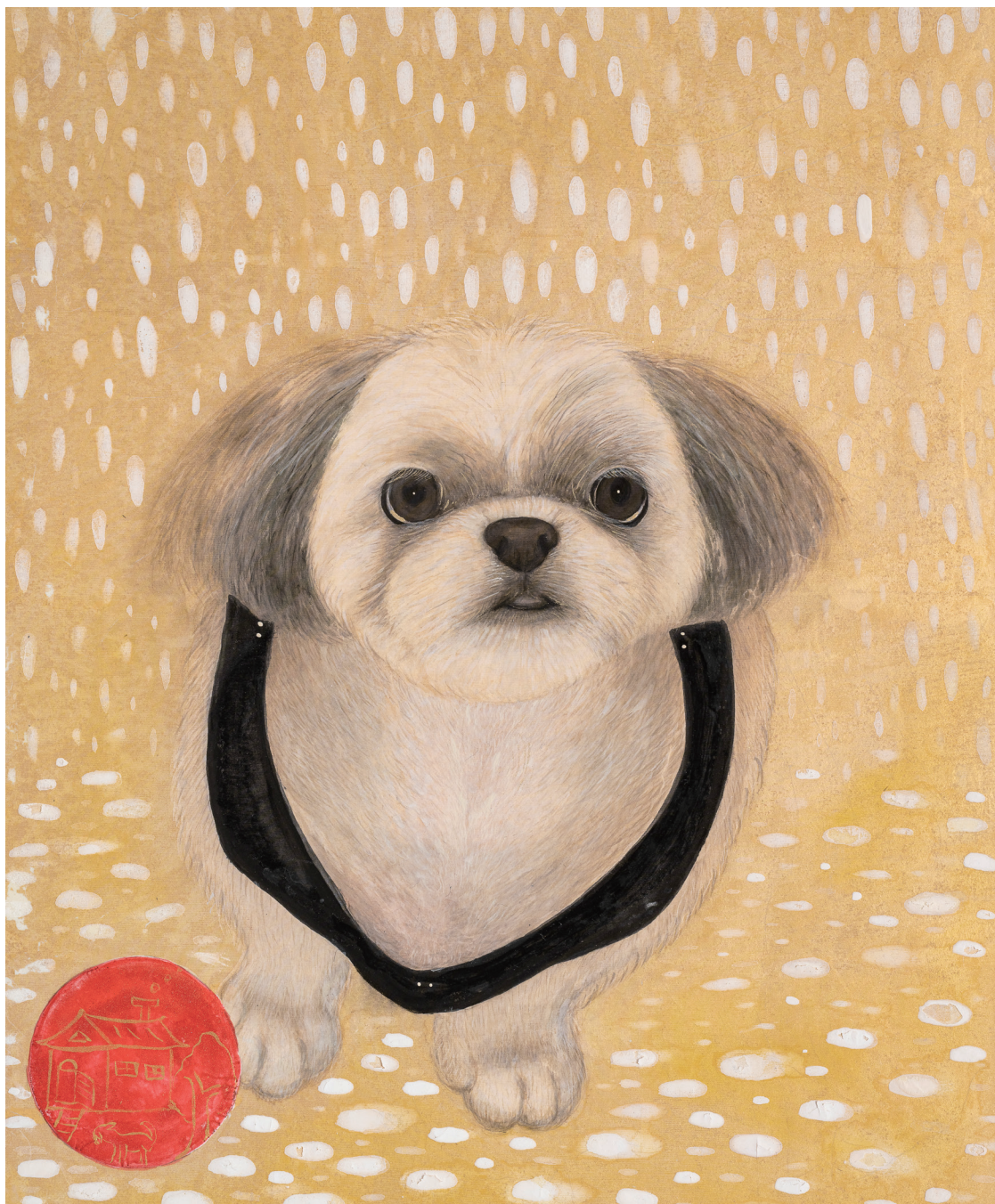
사랑 산책 23×32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사랑 산책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아리1 44×36.5cm, 비단에 석채 순금박 dyed mud pigments and pure gold leaf on silk, 2020



순돌1 41×29cm, 비단에 석채 순금박 dyed mud pigments and pure gold leaf on silk, 2020



초충도 35×27.5cm, 옷지 위 금박·석채·분채 dyed mud pigments and gold leaf on handmade sumac paper, 2020



46×53.5cm, 비단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silk, 2022



46×53.5cm, 종이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Korean handmade paper, 2022



31×33cm, 종이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Korean handmade paper, 2021



24×26.5cm, 종이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Korean handmade paper, 2021



23×31.5cm, 옷지에 채색 dyed mud pigments on handmade sumac paper, 2021

Love Walk in Seoul

약력 C.V.

임 수 영 Su Young Lim

E-mail 3museum@hanmail.net

Instagram @with_sundori

문학 박사

파인 송규태 선생 문학, 전통민화 사사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민화 전공) 박사학위 취득

한성대학교 대학원 - 회화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석사과정 수료

사)한국민화협회 부회장

한국민화학회 이사

조선민화박물관 주최

전국민화대전 심사위원

한국민화협회 주최 <대한민국 민화공모전> 심사위원

미국 L.A, 뉴욕, 이태리, 베트남 등 다수의 해외전시 개최

Lieutenant of Master Minhwa Painter, Gyu-tae Song

PhD in Literature

PhD in Minhwa at Gyeong-ju University, South Korea

Current MFA candidate in Oriental Painting at Hansung University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Folk Painting Association

Director at the Academy of Korean Folk Art

Judge for the Annual Minhwa Contest of the Korean Folk Painting Association 2020

Judge for the National Minhwa Contest of Kim Satgat Cultural Festival 2021